

재능 TODAY

발행인 이남식 | 발행처 재능대학교 방송학보사 | 주간 홍성식 | 간사 노유정 | 편집장 권예은 | 편집디자인 김형윤편집회사 | 인쇄처 (주)재능인쇄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 문의 032) 890-7955 | 홈페이지 www.jeu.ac.kr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재능이라면 가능해!
올해 입시, 1,237명의 가능성을 발견할 시간



다시, 대학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작년의 ‘나’를 생각하면 불안과 초조, 긴장이 다시 몰려온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가기가 이전보다 무척 수월해졌다고 하나, 막상 당사자의 입장이 되면 그렇지도 않다. 늘 남의 일이 쉬워 보이는 법. 대학을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방송학보사에서는 우리대학에 대한 정보를 가감 없이 제공하여 예비 지원자들의 소신 있는 선택을 돕기 위해 입시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1면-3면에 걸친 이 특집에서는 대학 입시 홈페이지나 AI 등이 알려주지 않는 우리대학의 속살, 알찬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다.

29개 학과, 수시 1·2차에서 82.1% 선발

우리대학은 올 입시에서 1,237명의 새내기를 맞을 계획이다. 29개 학과 30개 전공에서 수시 1·2차를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82.1%를 선발한다. 우리대학은 바이오헬스케어학부, AI융합학부, 문화콘텐츠학부, 웰니스학부, 서비스경영학부, 미래창업학부, 자유전공학부 등 7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학년도에 신설된 글로벌태권도학과를 통해 스포츠·글로벌 분야까지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평생의 경쟁력 확보, 재능이 무한책임

한 개인에게 평생의 경쟁력을 획득하는 시간은 그리 자주 오지 않는다. 우리 재능대학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경력과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최적의 교육으로 최고의 만족을 줄 것이다.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며 ‘재능’이란 자부심 아래 평생 함께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자극할 능력과 경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대학은 많지만, 재능은 하나다

사실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많다. 하지만 실력이 검증된 대학, 학생들을 모든 실천의 중심에 놓는 대학, 졸업 후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은 적다. 우리 재능대학교 같은 대학은 더욱 흔치 않다. 진정 귀한 것은 쉽게 보이거나 잡히지 않는 법이다.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후배들을 기다린다. 특히, 그 꿈을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 재능대학교를 검색해보라. 두 팔 벌려 반갑게 만날 날을 기다린다.

세상을 바꾸는 재능의 힘

Play Your Future!, 설렘이 시작되는 재능대학

다양한 진로 선택권 확장, 맘대로 꺼내 먹어요

우리대학은 미래산업과 지역사회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갖추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게임·디자인·실용음악·사진영상 등 문화콘텐츠, 뷰티·사회복지·유아교육 등 웰니스, 호텔·관광·항공·외식조리 등 서비스 분야까지 폭넓은 전공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29개 학과 최상의 경쟁력, 가장 극적인 turning point를 만들어줘요

우리대학의 간호학과, 보건의료행정과, 바이오생명과학, 화장품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드론영상과, 게임콘텐츠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호텔외식조리과, 항공서비스과 등 모든 학과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실무교육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있다. 이제 시작이다. 관심부터 중요하다.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인생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최적의 교육환경, 최고의 교수, 체계적인 교육학습, 그러나 먹여주진 않아요

“재능대학으로 가서, 깊어지고 넓어지라.” 우리대학에 대한 주위의 평판이다. 굳이 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숨어있는 재능과 잠재력을 깨워 겨울 별판과 같은 경쟁사회에 맨몸으로 나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장착해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을 키워줄 뿐, 억지로 떠먹여 주지는 않는다. 무한한 애정과 기회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완전히 자립 보행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질 뿐이다.



AI·BIO·Wellness,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 피지컬 AI 기반 미래교육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성장 주도



우리대학은 AI를 중심으로 교육 전반을 혁신하며 미래 사회와 산업에 요청하는 실시구시형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글로벌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대표 교육문화기업인 재능그룹의 교육 철학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을 연계해 AI·바이오·웰니스·문화콘텐츠 등 미래 성장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대표 교육문화기업 재능그룹과 함께 가는 대학

우리대학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자발적 본성에 기초하여 올바른 교육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스스로 창의적인 인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재능교육스스로학습철학’을 실현하는 곳이다. 재능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각자의 재능과 창의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두루 갖춘 전문 직업인의 산실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대학은 재능그룹의 재능교육, JCC(Jaeneung Culture Center), 재능방송, 재능인쇄, 재능유통, 재능e아카데미, 재능셀프러닝 등의 계열사와 긴밀한 산학연계 체계를 통해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AI 특성화 대학, AI-X(AI Transformation) 교육으로 융합형 인재 양성

우리대학은 AI를 대학 혁신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교육·연구·산학협력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며 특성화하고 있다. AI융합학부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전 학과를 대상으로 AI-X(AI Transformation)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노코드(No-Code) 기반 실무형 AI 교육모델을 도입해 전공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 결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으며, 2026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인공지능 특화대학 부문 대상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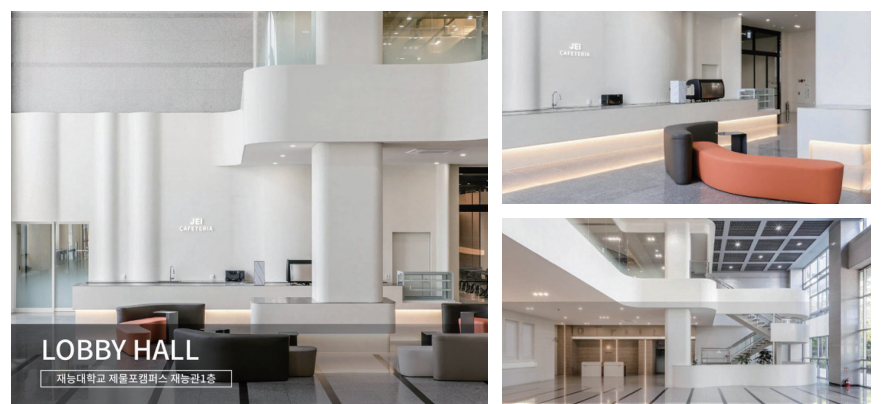
AX·BX·WX, 재능의 미래전략 키워드

AI 기반교육·산학협력 혁신, Bio 전략산업 인재 양성, Wellness 돌봄·복지 생태계 확산은 우리대학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그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국가·지역의 전략산업과 인재 양성 방향을 반영하여 우리대학이 국내외에서 활약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 혁신과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 유기적인 산학협력을 토대로 피지컬 AI시대를 주도하는 특화대학으로의 지평도 단단하게 열어가고 있다.

글로벌 대학, 세계무대로 통하는 가장 확실한 길

우리대학은 해외 대학과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한 교육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대학에서 전공과 실무역량을 쌓은 뒤 해외 대학의 심화교육과 글로벌 기업현장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무대를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ASU)와도 협력하여 첨단제조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Angelo State University 등과

▶ 2면에서 계속





‘2026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인공지능 특화대학 부문 수상

현장중심 AI 교육 설계·운영, Arizona State University와 피지컬 AI 교육과정 공동 설계

우리대학이 6월 10일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사무국(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한 ‘2026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에서 인공지능 특화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AI 기반 교육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리대학은 AI-X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노코드 기반의 현장 중심 AI 교육체계를 운영해 왔다. 산업체 수요에 맞춘 AI·DX 교육과 농식품 분야 AI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글로벌 교육협력도 확대해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 제조·로봇·드론 분야를 연계한 피지컬 AI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AI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면접 등을 포함한 AI One-Stop 5단계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AI 교육을 강화해 미래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부 ‘재직자 AID 30+ 집중캠프’ 2년 연속 선정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사업 선도대학 지정

우리대학이 6월 8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AID 30+ 집중캠프)’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026년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AI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인천지역 전략산업인 ‘뷰티·코스메틱’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뷰티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실습, 개별 과제, 그룹 발표 등 참여형 교수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와 글로벌 교육과정 구축

학생 해외 진출 기반 확대

우리대학은 8월 4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ASU)와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전문대학의 현장 중심 교육과 ASU의 글로벌 교육, 미국 현지 산업체 실무 경험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들은 국내에서 전공·실습교육 후 ASU 온라인 교육과 1년간의 심화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미국 진출 한국 기업에서 1년간 인턴십 또는 현장실무교육(OJT)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대학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해외 취업 및 진출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고교생 공모전 ‘JEIU GAME CREATOR AWARDS 2026’ 성공적 마무리

일러스트·캐릭터디자인·AI 등 게임디자인 분야 3개 부문 공모 우리대학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JEIU GAME CREATOR AWARDS 2026’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게임 분야의 창작 인재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일러스트, 캐릭터디자인, AI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거쳐 김은조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권다영 학생이 최우수상, 송예은 학생이 우수상, 이윤지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우리대학 입학 시 1학기 전액 감면 장학증서, 특기자 전형 우대 혜택이 주어졌다. 지난 8월 13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작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전북대와 생성형 AI 기반 교육 혁신 위한 협력의향서(LOI) 체결

초광역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협력 본격화

우리대학은 5월 26일 국가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를 방문해 양 대학 간 교육 혁신 인프라 공유와 산학·학술 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생성형 AI 시대에 대응한 대학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선진 교육환경 모델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됐다. 양 대학은 협력의향서 체결에 따라 미래 첨단 분야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5극 3특’ 관련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공동 대응, 대학 간 인프라 및 교육 노하우 공유 등 고등교육 전반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수면산업협회·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웰니스 산업 활성화 모석

수면·멘탈·뇌 건강 분야 산업 생태계 구축 위한 MOU 체결

우리대학은 6월 4일 한국수면산업협회,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와 재능관 대회의실에서 웰니스 산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정신건강과 수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슬립테크를 비롯한 웰니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 기관은 웰니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특히,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역량과 산업계의 전문성을 결합해 웰니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어울 화장품 서브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성공적 마무리

인천지역 원료 활용 로컬 뷰티 브랜드 개발 참여

우리대학은 6월 18일 인천지역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어울(Oull)과 진행한 서브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및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해 인천지역 원료인 쌀, 죽, 다시마 등을 활용한 신규 화장품 브랜드의 콘셉트를 구체화하고, 재학생들에게 브랜드 기획과 네이밍 실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시각디자인과 최예원 학생, 최우수상은 디지털경영과 전현숙 학생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손민정 학생과 글로벌관광비즈니스과 정새미 학생에게 돌아갔다.



헬로우아폴로와 리테일·유통 전문인재 양성 MOU MD·CS·물류 분야 취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

우리대학은 6월 23일 재능관 대회의실에서 주식회사 헬로우아폴로(대표이사 진주영)와 리테일·유통 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헬로우아폴로는 리테일 비즈니스, MD, CS, 물류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양 기관은 MD·CS·물류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취업 연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실습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실습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연계 사업을 추진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프로페셔널 헤어 브랜드 로레알 프로페셔널과 MOU

미래 뷰티산업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공유

우리대학은 7월 14일 글로벌 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로레알 프로페셔널과 지역 상생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로레알 프로페셔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합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뷰티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리대학은 로레알 프로페셔널과 함께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기술 협력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 창작자 양성 MOU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운영 통해 실용음악과 학생들 산업 진출 지원

우리대학은 7월 24일 서울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미래 음악산업을 이끌어갈 창작 인재 양성과 음악저작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술 발전으로 음악의 창작·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창작 실무는 물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권리 보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용음악과 재학생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회 규정에 따른 신청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협력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본부, 현대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우리대학은 7월 13일 재능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본부 및 현대시장 상인회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인천 원도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9월 운영 예정인 '현대시장 팝업스토어 및 야시장'의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우리대학은 13개 창업동아리가 참여하는 릴레이 팝업스토어 운영과 실용음악과 버스킹 공연으로 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제조 디지털 전환(DX) 협력 본격화

뿌리산업 DX·3D프린팅 기술 협력으로 지역 제조혁신 강화
우리대학은 8월 1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지역 제조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뿌리산업 기반 제조 디지털 전환(DX) 모델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연구장비 공동 활용, 원천기술 사업화 등에 협력한다. 3D프린팅 첨단기술 훈련과 제조 DX 기술 실증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기술 실증부터 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포와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조리 인재양성 협력

푸드테크 산업 선도할 AX 융합형 인재 양성

우리대학은 8월 11일 (주)디포와 지역산업 AX 수요 대응 및 피지컬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피지컬 AI 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스마트 주방 자동화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업 전문가 특강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현장 중심의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호텔외식조리학과와 IT 관련 학과의 교육 역량에 (주)디포의 스마트 주방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여 푸드테크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AX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우리대학은 피지컬 AI 분야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주관 고교 진학담당교사 입학간담회 개최

2027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및 대학 교육 경쟁력 공유

우리대학은 7월 3일 재능관 이벤트홀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 '2027학년도 인천지역 고교 진학담당교사 입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에게 2027학년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와 대학 간 진학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대학은 AI 기반 교육혁신과 산업 맞춤형 실무교육,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학생 취업 지원 체계 등을 소개하며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공유했다. 또한 바이오생명과 졸업생들의 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우수기업 취업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성과도 소개했다.



세계섬학술대회에서 피부진단 기반 K-뷰티 리빙랩 현장 실증

SkinData Lab 운영, 맞춤형 이너뷰티 서비스 선보여

우리대학은 7월 7-9일까지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 열린 2026 세계섬학술대회(ISISA)에 참가해 피부진단 기반 K-뷰티 리빙랩 'SkinData Lab'의 현장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앵커사업의 'K-뷰티 클러스터 리빙랩 구축' 세부 과제로 피부진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이너뷰티 서비스를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역 특산물인 섬쌀 미강을 활용한 기능성 이너뷰티 식품도 현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호텔외식조리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미강을 첨가한 마들렌을 직접 개발해 시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제2회 재능대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및 세계올림픽태권도 챔피언십 성공

품새·겨루기·격파·시범경연 등 태권도 전 종목 운영

우리대학은 7월 25-26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스카이드롬에서 '제2회 재능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및 세계올림픽태권도 챔피언십'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는 전국 태권도 선수들과 해외 선수단이 함께하는 국제 규모의 스포츠 축제로 치러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가 규모가 크게 확대돼 국내외 선수와 관계자 등 4,000여 명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멕시코, 인도, 러시아 등 19개국 해외 선수단이 참가해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했으며, 국제 태권도대회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였다.



일본 오사카에서 '인천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협력 기반 강화

도시재생·창업생태계 벤치마킹으로 RISE사업 추진 역량 업데이트

우리대학은 '제물포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해외 학술발표회 참가 및 로컬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로컬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제무대에서 검증하고 오사카의 도시재생 사례와 창업생태계를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호텔외식조리과 학생 7명은 리즈메이칸대학교에서 열린 호텔·관광 분야 최대 규모 학술대회인 'APacCHRIE 2026'에서 'MZ세대 소비자 관점에서 본 Farm-to-Table 브랜드의 진정성 형성 요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6년 ANCHOR 늘봄학교 강사 양성 기초연수’ 진행
초등학생 소통법·현장 사례 중심 실무형 연수 운영

우리대학은 6월 21일 재능관 대강당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늘봄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1차 늘봄학교 강사 양성 기초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늘봄학교의 이해, 초등교실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늘봄학교 현장의 이해 및 사례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됐다. 특히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초등교육 현장에서 강사들이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앵커사업단, 미추홀구청소년센터와
‘CODE: 815, 별 헤는 밤’ 개최

광복절 맞이 군집드론쇼 통한 지산학 협력 강화
앵커사업단은 광복절을 맞아 미추홀구청소년센터와 ‘CODE: 815, 별 헤는 밤’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교육과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연계한 지산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인천지역 중·고교생 20명과 우리대학 드론영상과 재학생 5명이 드론 군집비행과 코딩 실습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배운 기술을 활용해 광복절 기념 드론 비행과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행사에서는 인천의 독립 역사를 주제로 한 군집드론쇼와 청소년·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보훈문화 체험ZONE도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학위연계과정 설명회

영어 역량의 중요성 강조하며 구체적인 진로 설계 지원
지난 6월 8일 미국 웨스턴미시간대학교(WMU) 관계자를 초청해 재학생 대상 학위연계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해외 유학과 글로벌 진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위연계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WMU 관계자는 대학 소개를 비롯해 편입 절차와 학위취득 과정, 장학제도 및 미국 대학 진학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며 영어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로 설계를 도왔다. 우리대학은 참여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Duolingo English Test(DET) 대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 ANCHOR 늘봄학교 리더스 심화연수’ 진행
늘봄학교 강사 대상 우수사례 공유·프로그램 고도화 지원

우리대학은 6월 한 달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늘봄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늘봄학교 심화연수(리더스)를 운영했다. 이 연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수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강사들은 학생 참여를 높이는 수업 운영 방법과 교구 활용 사례, 문제 상황 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학생자치기구, 재능고등학교 학생 복지 지원
총학생회·대의원회·총동문회, 학생 참여 기부문화 실천

우리대학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총동문회는 7월 2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대학 축제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을 재능고등학교에 전달하며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기부금을 다시 학생 복지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학생자치기구는 이번 기부를 통해 학생 참여형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생들이 함께 만든 나눔이 또래 학생들의 복지로 이어지며 교육공동체의 상생 가치를 더욱 높인 것이다.



인공지능드론연구소,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본선 진출

9월 국방부 주최의서 열리는 본선 무대 진출
우리대학 인공지능드론연구소가 9월 7-12일까지 경기도 포천에서 열리는 국방부 주최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본선에 진출한다. 이 대회에는 전국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47개 지원팀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서면평가를 통과한 21개 팀이 예선에 진출했으며, 드론 분야 4개 팀과 대드론 분야 4개 팀 등 총 8개 팀이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예선대회는 6월 10-12일 3일간 포천에서 진행됐다. 인공지능드론연구소는 대드론 분야 본선 진출 4개 팀 중 하나로 선정되어 AI·드론 융합 기술력과 현장 중심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평생직업교육처

K-하이테크플랫폼,
인도 답테크 기업 TuxSemi와 기술 협력 본격화
‘3D프린팅 융합 기술’ 협력 논의

K-하이테크플랫폼 사업단은 8월 18일 인도 답테크 기업 TuxSemi 경영진과 3D프린팅 융합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우리대학의 3D프린팅 첨단 인프라와 산학연 공유·개방형 훈련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3D프린팅에 Edge AI, 임베디드 시스템, 로봇틱스, IoT 등을 접목한 융합 교육과정 개발 가능성을 모색했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재직자의 첨단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사업단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K-하이테크플랫폼,
(주)디솔루션즈와 ‘미래형 신기술 융합’ 협력
3D프린팅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융합으로 인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K-하이테크플랫폼 사업단은 8월 13일 (주)디솔루션즈와 미래형 신기술 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D프린팅과 디스플레이·IoT 기술을 연계한 실무형 재직자 훈련을 활성화한다. 또한 기업의 3D프린팅 기술 활용과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제조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협력한다. 우리학교는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과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 지역 3D프린팅 융합기술의 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평생교육원

‘2026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1학기
성공적 마무리
베이킹·보자기아트·플랜테리어 등 실습 중심 평생교육 운영

평생교육원은 ‘2026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재능대캠퍼스’ 1학기 교육과정을 성과 있게 마무리했다. 올해는 특히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이해하는 인천학 과정과 실습 중심의 베이킹·보자기아트·플랜테리어 과정, 디지털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스토어 과정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했다. 수강생들은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익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졌다. 우리대학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과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평생학습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민대학 재능대캠퍼스를 통해 총 30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 창의논리캠프 운영

영재교육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물포구 초등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창의논리캠프’를 개최했다. 제물포구 후원인 이번 캠프에는 선정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160명이 참여했다. ‘사이언스 키자니아: 과학기술도시 캠프’를 주제로 DNA 추출, 알긴산 캡슐 제작, 지문 채취, 손발전기 제작 등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통해 생명과학과 과학수사, 에너지 변환 등의 원리를 직접 탐구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아이와 함께하는 동화 속 과학’을 주제로 탄산 및 입욕제 만들기 등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놀이 특강도 마련됐다. 영재교육원은 지역 어린이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수요자 맞춤형 역량 UP 패키지’로 지역청년 취업 지원

지역청년 대상 반도체 연구 직무 특강 진행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6월 4일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과 지역청년의 직무 이해도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역량 UP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2026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삼성전자 현직자가 강사로 참여해 반도체 연구 직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반도체 산업 동향과 연구 직무의 특성,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취업 준비 전략 등을 소개했으며, 참여자들의 직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 청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산업과 연구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했다.



인권센터

인권 보호 협력체계 강화 위한 지역 유관기관 연계

인권침해·젠더폭력 예방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 논의

인권센터는 7월 15일 재능관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권침해와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피해자 지원과 기관 간 연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인천제물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주요 사업과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옹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풀무원푸드머스와 어린이·고령층 건강한 식생활 강화 위한 MOU

도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지원

인천옹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8월 10일 풀무원푸드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도서지역의 급식 품질을 높이고 어린이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안전한 급식과 식생활 가이드 제공, 등록시설 이용자 대상 맞춤형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어린이급식소 16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3개소 대상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는 풀무원푸드머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을 활용해 도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수 소식

박윤수 교수(드론영상과), ‘안티드론 장비운용’ 전공 교재 발간

안티드론 전문 교육 기반 구축에 기여



드론영상과 학과장 박윤수 교수는 드론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국방·치안 분야의 안티드론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안티드론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전공 교재를 직접 집필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안티드론개론』(2024), 『안티드론장비운용(상)』(2025), 『안티드론장비운용(하)』(2026) 등을 출간하여 안티드론 전문 교육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드론 영상과는 「2026 대한민국 대드론

공방전」에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결승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재학생인 2학년 김윤하 학생과 1학년 김재용 학생이 2026학년도 육군3사관학교 선발 과정에서 2차 전형까지 합격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바이오생명과학

올해 취업자 73%
세계적 바이오기업 입사

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인천 전략산업 핵심기업 진출

바이오생명과학이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 산업인력 공급처로 자리매김하며 주목받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올해 졸업생 85명 가운데 40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 중 29명(73%)이 셀트리온(13명), 롯데바이오로직스(13명), 동아 비티젠(3명) 등 인천지역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에 입사했다. 바이오생명과학은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교육을 통해 바이오 생산 및 품질관리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현장 미러링 교육과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이 대규모 취업과 지역 정주의 발판이 되었다. 바이오생명과학의 취업 성과는 ANCHOR 사업이 지향하는 ‘학생 중심 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유통상품기획과

AI 기반 해양·물류 혁신 아이디어로
해커톤 석권

인천국제해양포럼 해커톤 대회, 대상 등 모두 수상

유통상품기획과 학생들이 7월 16일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해커톤 대회’에서 AI 기반 해양·물류 분야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해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상은 정현욱 학생의 ‘디지털 갯벌 그리드를 통한 해양 탄소 자산화’가 차지했다. 이는 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원격 탐사와 AI 영상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인천 갯벌의 탄소흡수량을 정량화하고, 이를 ESG와 블루카본 탄소자산으로 연계하는 플랫폼을 제안했다. 우수상은 트윈체인AI팀(윤혜주·윤준혁·이현·엄예지)의 ‘AI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공급망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장려상은 다크팩토리팀(김세혁·박미소·신동원·최우진)의 ‘AI 기반 인천항 항만 혼잡도 예측 및 선박 배정 최적화 시스템’이 수상했다.



글로벌태권도학과

박정희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금 8개, 은 11개, 동 11개 획득

플래시몹경연 1위, 종합격파 3위 등
국제대회 놀라운 성과

글로벌태권도학과는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경북 상주시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박정희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했다. 개인품새와 기술격파, 태권체조, 시범공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새마을운동 노래를 활용한 대규모 플래시몹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단체 퍼포먼스 역량도 인정받았다. 또한 종합격파 부문에서도 3위에 오르며 신설 학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개인 품새 선수부에서는 최유찬·구준·문명환·이예찬·김민성·유수아 학생이 1위, 개인기술격파의 수평축회전격파에서는 문명환 학생이 1위, 수직축회전격파에서는 이유림 학생이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관광비즈니스과

서울국제관광전 참가,
글로벌 문화관광 인재 양성 박차

글로벌 관광 트렌드 및 체험형 콘텐츠 학습

글로벌관광비즈니스과는 6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현장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국내외 관광산업의 최신 동향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전공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전시회에서 세계 각국의 관광 콘텐츠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사례를 학습했다. 또한 서울국제관광전 주관사인 (주)코트파의 신혜원 차장으로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동향과 여행상품 기획 사례, 체험형 관광 콘텐츠 운영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간호학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직무탐방 프로그램 운영

간호현장 견학 통해
임상 이해 높이고 진로 탐색 지원

간호학과는 6월 30일 2026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잡투어(Job Tou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서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간호현장 직무탐방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병원과 간호부 소개를 시작으로 신규간호사 교육과 경력개발 체계, 채용 설명, 슬기로운 임상실습, 신속대응팀 업무, 감염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병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한 환자 중심 간호 문화와 환자 안전 중심의 간호 실무를 접하며 임상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진취동아리 N.I.C.E,
국제성모병원 현장견학

국제성모병원 임상현장 체험으로
진로역량 강화

간호학과 진취동아리 N.I.C.E는 7월 29일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을 방문해 임상현장 이해와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국제성모병원 CKUM(꿈)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병원 소개와 간호부 특강을 시작으로 신규간호사 교육지원 프로그램, 감염관리실과 PI실의 역할 소개, 임상현장 투어,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병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전문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을 직접 살펴보고 병동과 특수부서를 견학하며 실제 임상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

여름캠프, 「여름나라, 보물을 찾아라!」

교육환경 개선, 유아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

놀이와 미션으로 즐긴 특별한 여름캠프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7월 3일 여름의 계절적 특성을 만끽할 수 있는 여름캠프 「여름나라, 보물을 찾아라!」를 운영하였다. 유아들은 여름을 주제로 다양한 놀이와 미션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보물지도를 완성하고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일상적인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유치원 공간을 새로운 놀이 장소로 경험하면서 여름이라는 계절을 더욱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여름방학 맞아 교육환경 새롭게 정비

유치원은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급식실의 노후된 타일과 벽지를 교체하여 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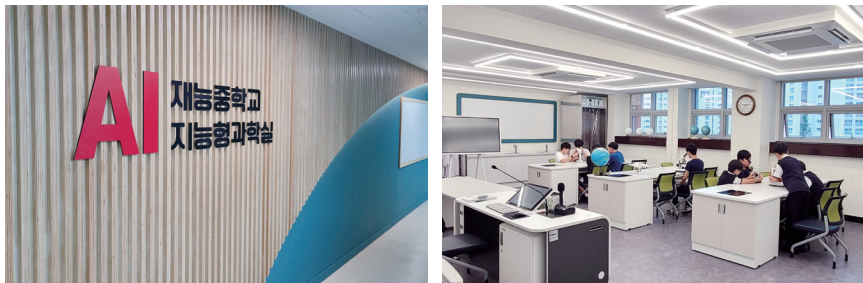


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했으며, 일부 교실의 노후된 벽지도 새롭게 교체하여 유아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였다. 이번 환경 개선은 단순히 오래된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유아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아들이 머무는 공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재능중학교

AI·디지털로 만나는 미래, 함께 나누며 성장하다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운영, AI·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능중학교가 ‘2026년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로서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식 나눔을 실천하며 미래 교육 선도에 나섰다. 재능중학교는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지식나눔공유활동’을 운영했다. 이는 선도학교의 교육 성과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재능중학교 AI 동아리 학생들이 전문 강사가 되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익숙한 교실 환경에서 다양한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AI로 만나는 20년 뒤의 나’ 활동에서 학생들은 생성형 AI와 시각적 프롬프트를 활용해 자신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이렇게 제작된 이미지를 개인 노트북 바탕 화면으로 설정하며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송병학 선생님의 진로 특강과 과학기술 체험이 병행되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 표현력을 높이고 미래 설계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능중학교는 ‘AI 지능형 융합과학실’도 새롭게 구축했다. AI·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육환경을 갖춘 지능형 과학실에서 학생들은 첨단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능고등학교

‘피지컬 AI 제조’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인천지역 특성화고 최초, 5년간 최대 45억 원 지원 예정



재능고등학교가 인천지역 특성화고 최초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선정되며 미래 제조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향후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아 ‘피지컬 AI 제조’를 중심으로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을 로봇과 기계·장비 등에 접목해 현실의 제조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기술로 미래 제조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재능고는 AI로봇제어과와 AI전자자동화와, AI반도체 공정과, AI산업디자인과를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새롭게 개편한다.

학생들은 전공별 전문기술에 AI·로봇·반도체 등을 접목한 프로젝트와 실습에 참여하며 산업현장에 필요한 융합 역량을 키우게 된다.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연계도 한층 강화된다. 유일로보틱스와 유진로봇 등 약 30개 기업이 현장 중심 교육에 참여해 직무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우리대학교도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고교에서 쌓은 전공 역량이 대학의 심화 직업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 재능고는 이번 선정을 발판으로 고교·대학·산업체를 잇는 미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피지컬 AI 제조 분야를 이끌 전문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재능교육

“AI 시대, 사람의 목소리로 전하는 따뜻한 감성, 동화구연”

제26회 재능동화구연대회 개최



재능교육의 재단법인 재능문화가 주최하고 재능교육이 후원하는 ‘제26회 재능동화구연대회’의 온라인 예선 참가 접수가 7월 31일 까지 진행됐다. 2001년 시작되어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재능동화구연대회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화구연 축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재능교육 등이 후원한다.

AI 시대에 더욱 빛나는 ‘사람의 목소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간 고유의 영역인 ‘정서적 교감’과 ‘공감 능력’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능문화 측은 “AI가 지식 전달은 대신할 수 있어도,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한 체온과 미묘한 감정의 결까지 재현하기는 어렵다”라며 동화구연은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주고 성인들에게는 잊고 있던 순수함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감성 교육이라고 밝혔다. 재능동화구연대회는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들려주는 경연을 넘어

참가자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관객과 호흡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신감과 언어 감수성을 높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유치부·초등부·성인부 참여, 10월 본선

올해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성인부를 대상으로 1차 예선과 2차 본선으로 진행되었다. 1차 예선은 참가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음원 또는 영상을 통해 심사하며,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오는 10월 JCC 재능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서 최종 경합을 펼친다. 성인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아동문학인협회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동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아동문학인협회가 인증하는 ‘동화구연가 증서’가 수여돼 전문 구연가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참가 희망자는 재능동화구연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개최 요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재능동화구연TV’와 인스타그램 ‘JEI 재능문화’에서도 역대 수상작과 전문 동화구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26년간 동화로 이어온 소통

재능문화 관계자는 “재능동화구연대회는 지난 26년간 동화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잇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나누는 교육·문화 축제로 자리해 왔다”라며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을 깨우는 문학과 이야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대회가 동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공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능문화

20년 넘게 이어온 ‘재능시낭송여름학교’ 개최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맞아 ‘만해마을’에서 2박 3일간 열려

2006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온 ‘재능시낭송여름학교’가 올해도 문을 열었다. 재능시낭송여름학교는 재능교육이 설립한 재능문화가 주최하고 재능시낭송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시낭송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는 만해한용운 시인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2박 3일간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한용운의 문학정신을 되새기며 시와 낭송이 지닌 울림과 가치를 함께 나누었다.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시낭송의 깊이

‘2026 재능시낭송여름학교’에는 시를 사랑하는 일반인 230여 명이 참여했다. 이상호 한국시인협회장과 박정자 배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시 읽기와 작품 이해를 비롯해 시낭송 이론과 실습, 발성, 감정 및 무대 표현 등을 교육했다. 참가자들은 한 편의 시를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작품에 담긴 정서와 의미를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었다.

배움에서 무대까지, ‘특별시낭송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그동안 익힌 낭송 실력을 선보이는 ‘특별시낭송경연대회’도 열렸다. 실제 무대 경험을 쌓는 동시에 서로의 낭송을 듣고 교류하며 같은 작품도 목소리와 표현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시낭송의 매



재능시낭송여름학교 나태주 시인 특강(2025년)



재능시낭송여름학교 수업(2025년)

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재능문화는 재능시낭송여름학교를 통해 시문학을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편, 시를 매개로 세대와 지역을 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AI 시대, 사람의 목소리로 나누는 감성과 공감

재능문화 관계자는 “AI로 글과 이미지, 영상 등을 손쉽게 만들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 공감이 지닌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한 편의 시를 깊이 읽고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이번 여름학교가 참가자들에게 문학의 가치와 낭송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능문화는 재능시낭송여름학교를 비롯해 재능시낭송대회, 재능동화구연대회, 재능 헤화 마티네 공연, 교육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가까이 경험하고 사람과 사람이 감성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학생활 TIP

공강 2시간, 뭐 하지?

빈 시간도 대학 생활이다, 나에게 맞는 공강 활용법



30분씩 쌓아가는 ‘스펙 한 조각’

공강은 자격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자격증 문제를 몇 개 풀어보는 등 짧은 목표를 세워보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직무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 취업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관심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알아두면 대학생활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공강 활용법

공강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전부터 이어진 수업으로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 학교 주변을 걷거나 음악을 듣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머리를 식혀보자. 다음 수업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역시 공강을 잘 보내는 방법이다.

나만의 ‘공강 루틴’을 만들어보자

공강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거창한 계획보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2시간이라면 ‘30분 점심 식사, 1시간 과제, 30분 휴식’처럼 시간을 나눠볼 수 있다. 새로운 시간표와 함께 시작된 2학기. 무심코 흘려보냈던 공강도 모이면 꽤 긴 시간이 된다. 이번 학기에는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며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빈 시간을 채워보자.

편집장 권예은

영화 추천

스크린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도전

영화『스파이더맨: 브랜즈 뉴 데이』



종강 후 찾아온 긴 여름방학, 다들 어떤 문화생활로 일상을 채우고 있을까? 반복되는 습한 날씨에 지쳤다면 가볍게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난 7월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즈 뉴 데이』는 145분 동안 스크린에서 눈을 떼기 어려울 만큼 몰입감 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번 영화의 핵심 포인트는 전작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이어지는 서사다. 전작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철저히 혼자가 된 피터 파커가 주변 인물들과 엮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현실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영화 속 스파이더맨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타인을 이해하며 한층 성숙해진다. 상처 속에서 진정한 히어로로 발전해가는 모습은 관객에게 감동을 안긴다. 우리 역시 새로운 시작에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시 일어서는 스파이더맨처럼 조금은 더 용감하게 나가보면 어떨까.

학생기자 성보미

문화 이야기

활자에서 영상으로

상상 속 이야기가 스크린을 만났을 때



상상으로만 움직이던 주인공이 영상으로 표현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활자 속에서 상상하던 인물과 장면이 스크린으로 펼쳐지던 순간, 내가 그려왔던 모습과 비교해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 『파과』의 경우, 소설을 읽기 전 영화

로 먼저 접했는데, 평소 스틸러를 잘 보지 않던 내게 새로운 자극이 되어 소설로도 읽게 되었다. 영화로 표현되지 않았던 내용이 소설로 자세히 묘사된 모습을 보고 인간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표현될 수 있을까 하며 행복해 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좋았던 점은 영화로 접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소설에 이입해 마치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 더욱 실감나고 재미있게 독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예시로는 『작은 아씨들』이 있다. 이 작품은 소설로 읽고 나서 영화를 접했는데, 내 상상과 비슷하게 표현된 주인공들의 모습에 반해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된 최애 영화가 되었다. 나는 종종 책을 완독하고 나서 여운이 길게 남는 편인데, 그 여운을 영상으로 다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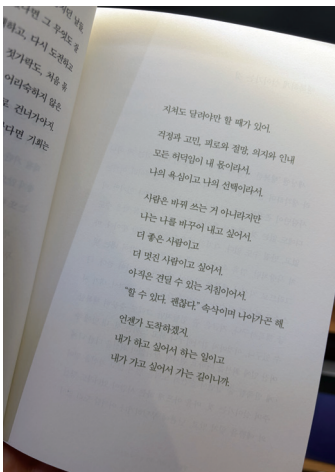
우리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색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번 가을에는 한 작품을 소설과 영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같은 이야기 속에서 서로 다른 상상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편집장 권예은

독서 추천

9월, 나에게 집중할 시간

책과 함께 시작하는 가을



9월이 찾아왔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책 한 권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른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해진 날씨 덕분에 차분하게 무언가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학교생활과 과제, 아르바이트 등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책 한 권을 온전히 읽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을 펼쳐보자. 짧은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할 수 있다. 독서를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렵고 두꺼운 책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관심 있었던 분야의 에세이나 짧은 소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처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부터 시작해보자. 친구와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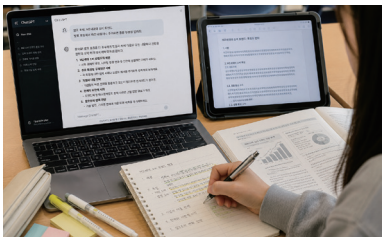
책을 읽는 시간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이면서 잠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시작된 9월, 하루 10분의 작은 독서로 일상에 새로운 생각과 여유를 더해보자.

학생기자 권민서

함께 알아보아요

과제부터 취업 준비까지

대학생은 AI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고 긴 자료를 요약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일까지, 생성형 AI는 어느새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속 익숙한 도구가 되고 있다. 개인 과제뿐만 아니라 그룹 토의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

는 ‘학습 도우미’로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발표를 준비하며 AI를 학습 도구로 활용해봤다. 발표 내용을 먼저 구성한 뒤 AI에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질문했다. 그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발견했고, 필요한 내용을 다시 찾아보며 발표를 보완할 수 있었다.

더 알고보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AI의 답변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찾아봤다. 필요한 검색 키워드를 찾은 뒤 실제 자료와 비교하며 정보가 정확한지도 확인했고, 발표 주제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다.

취업 준비에서도 AI는 유용한 연습 도구가 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 문장을 점검하거나 ‘면접관처럼 질문해줘’라고 요청해 예상 질문에 답해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다. 직접 활용해보니 AI는 정답을 대신 만들어주는 도구보다 내가 놓친 부분을 발견하고 더 깊은 학습으로 이어가는 도구로 사용할 때 더욱 유용했다. 학생기자 **성보미**

콘텐츠 시대, 나에게 맞는 자격증은?

자격증으로 실력을 증명한다

유튜브와 숏폼, SNS 등 영상 콘텐츠가 일상화되면서 영상과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도 늘고 있다.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관심 직무에 맞는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다면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관련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영상 촬영과 편집, 콘텐츠 제작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도전해볼 수 있다.



디자인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자인 작업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기술자격이다. 영상 촬영과 편집, 콘텐츠 제작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도전해볼 수 있다.



웹 콘텐츠까지 영역을 넓히고 싶다면

‘웹디자인개발기능사’는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웹디자인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적합하다.



색으로 경쟁력을 더하고 싶다면

‘컬러리스트산업기사’는 색채 재현과 보정, 감성배색 등을 다루며 디자인·브랜딩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에 포트폴리오를 더하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자격증뿐 아니라 실제 작업 경험도 중요하다. 자격증을 준비하며 익힌 기술로 영상이나 디자인 결과물을 직접 제작해 포트폴리오로 연결해보자. 무조건 많은 자격증보다 희망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기자 **윤나희**

떠나볼까요?

인천에는 바다도 있고 서해의 노을을 만나는 곳, 정서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싶다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정서진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정서진은 경인아라뱃길과 서해가 만나는 곳으로 아름다운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다.

바다를 따라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

정서진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하늘과 서해가 붉게 물들며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사진 촬영을 좋아한다면 일몰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도 좋다.

노을과 함께 마무리하는 하루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은 야외에서 풍경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방문해도 좋고, 혼자 조용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해도 좋다. 이번 가을, 아름다운 서해의 노을과 함께 정서진에서 잠시 쉬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기자 **권민서**

축제 미리보기

11월, 축제의 밤이 찾아온다

축제와 테마파크가 만날 예정



*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우리대학은 오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테마파크&놀이공원’을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부스와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된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축제에 참여하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특히 아티스트 공연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무대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학과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 먹거리가 어우러져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기자 **윤나희**



스타가 스타를 만든다

Creating the Next Star

클래스가 다른 배움, 최고의 교수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시작에 **재능대학교**가 있습니다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반세나 교수

스포츠재활과
김근국 교수

항공서비스과
서동희 교수

호텔외식조리과
이윤정 입학홍보처장

재능대학교
이남식 총장

글로벌태권도학과
문대성 교수

간호학과
김인선 교수

게임아트디자인과
홍영신 교수

인테리어디자인과
이웅구 교수

호텔외식조리과
윤예리 교수

재능대학교는 재능그룹과 함께 합니다